특별한 여름방학 선물 '시네마판타지'

이음음악협회, 전주 문화공간이룸서 19일 다채로운 영화 음악 역사 · 이야기 선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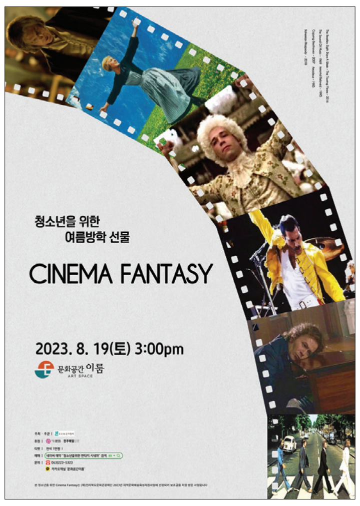
오는 19일 오후 3시에 이음음악협회가 자랑스럽게 선보이는 특별한 음악회, '시네마판타지' 콘서트가 전주 문화공간이룸에서 열린다.

이음음악협회는 기존의 많은 단체와 차별화된 단체로, 클래식, 대중음악, 재즈, 국악과의 퓨전 음악까지 폭넓은 장르와 다양한 악기군의 편성으로 관객들이 함께 소통하고 공감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선보이고 있다.

시네마판타지 콘서트는 청소년들을 위한 특별한 여름방학 선물로 기획됐다. 콘서트에서는 단순히 영화 OST 곡을 연주하는 것을 넘어서, 음악의 역사와 이야기를 즐기며 클래식 음악을 쉽고 재미있게 접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며, 다양한 음악 장르와 시대의 배경을 함께 소개하고, 관객들을 음악의 세계로 이끄는 특별한 시간을 선사한다.

이음음악협회는 영화 속 음악인들과 그들이 등장한 영화를 토대로 음악사적 시대 배경을 설명하며, 해당 시대의 음악을 연주할 예정이다. 관객들은 영화 음악과 함께 음악의 아름다움과 감동을 새롭게 발견할 수 있을 것이며, 특히, 콘서트에서는 전 세계적으로 사랑받는 음악가 모짜르트와 베토벤을 알기 쉽게 소개한다.

그들이 등장하는 영화와 그 영화에 삽입된 곡을 클래식 악기로 연주하여 들려줄 예정이다. 이를 통해 관객들은 음악적 스킬과 재능을 발전시킬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된다.



'시네마판타지' 콘서트 포스터

또한, 이음음악협회는 다양한 장르의 음악과 아티스트들을 소개하는 시간을 마련하고 있어, 비틀즈와 락 그룹 퀸과 같은 글로벌 아티스트들이 영화 속에서 어떤 음악으로 등장했는지, 그리고 그들의 음악을 클래식 악기와 재즈 악기로 재편곡하여 들려줄 예정이다.

이를 통해 관객들은 음악의 다양성과 연결성을 느끼며 더욱 열정적으로 음악을 접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사운드오브뮤직에 나오는 음악들을 특별한 메들리로 연주하여 학생들에게 음악의 매력과 다양성을 알려주고, 이 메들리는 클래식 악기와 재즈 악기가 만나 특별한 감동을 선사할 것이다.

이음음악협회는 음악만으로 그치지 않고 감성 문화예술의 창작과 보급에도 힘쓰고 있다. 이번 시네마판타지 콘서트를 통해 클래식과 영화 음악이 융합되는 색다른 음악적 경험을 선사하며, 관객들은 음악과 감성의 아름다움에 더욱 깊이 빠져들 수 있을 것이다.

시네마판타지 콘서트는 이음음악협회의 다채로운 음악적 스펙트럼을 표현하고, 청소년들과 지역민들에게 즐거운 음악적 경험을 선사할 예정이다.

시네마판타지 콘서트를 주최하는 이음음악협회 대표는 "이 콘서트를 통해 청소년들은 음악의 다양성과 아름다움을 경험하며 음악적 호기심을 자극받을 것"이라며, "또한 영화와 음악의 만남으로 인해 깊은 감성적인 경험을 누리게 될 것"이라고 전했다.

그는 "이 콘서트를 통해 청소년들이 음악의 매력을 발견하고, 음악을 통해 더욱 풍요로운 삶을 즐길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김재훈 기자

남원시립합창단 아름다운 선율 펼쳐진다

5일 제83회 정기공연 개최

남원시립합창단(지휘자 최관)에서는 오는 5일 오후 5시 춘향문화예술회관 대공연장에서 제83회 정기공연을 펼친다.

'SONGS & OPERAS' 라는 주제로 열리는 이번 공연은 가곡과 뮤지컬, 오페라, 오페렛타 등 다양한 장르의 곡들로 구성되어 있으며, 합창은 물론 독창과 듀엣까지 다양한 무대가 준비되어 있다.

특히, 올해는 니노 오케스트라(지휘 이일구)가 출연해 합창단과 함께 이전보다 더욱 다채롭고 풍성한 소리로 감동의 무대를 선사할 예정이며, 이번 공연은 시민의 문화예술 향유를 위해 기획된 공연으로, 별도의 사전예매 없이 전석 무료로 진행되며 공연 40분 전부터 입장 가능하다.

남원시 문화예술과 김경숙 과장은 "니노 오케스트라와의 협연으로 남원의 예술문화가 더욱 활성화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시립합창단의 아름다운 선율로 잠시나마 더위를 잊으셨으면 한다"고 전했다. /남원=김기두 기자

전북문화관광재단은 오는 15일까지 도내 문화예술 단체·기관을 대상으로 '문화예술교육 컨설팅 지원사업' 신청을 받는다.(사진은 2022년 컨설팅 지원사업 진행 모습)

문화예술교육 컨설팅 지원 추진

전북문화관광재단, 15일까지 지원사업 신청 접수

전북문화관광재단(대표이사 이경윤)은 오는 15일까지 도내 문화예술 단체·기관을 대상으로 '문화예술교육 컨설팅 지원사업' 신청을 받는다고 전했다.

이는 문화예술교육 분야로 진출을 희망하는 문화예술 단체 및 기관에게 문화예술교육분야 전문 교육 및 컨설팅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3일 재단에 따르면 작년에 처음 추진한 이 사업은 운영상의 어려움을 겪는 문화예술교육 단체가 전문가의 맞춤 컨설팅을 지원받아 고충을 해소하고, 문화예술교육 역량을 늘릴 수 있는 계기를 마련했다는 호평을 받았다.

이에 올해도 △공모사업 전략 △교육 프로그램 구성 및 기획 △단체 홍보 노하우 등 다양한 분야의 솔루션을 제공받을 수 있도록 컨설팅을 진행, 참여 단체·기관들의 문화예술교육 분야 진입장벽 해소와 공모사업의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특히, 서면 컨설팅이 추가돼 지원횟수가 최대 3회로 늘었다.

프로그램 사업 대상은 문화예술교육 분야로 진출을 희망하거나 관련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도내 문화예술 단체 및 기관이며, 컨설팅은 8월~11월까지 진행된다.

현재 재단 홈페이지(https://www.jbct.or.kr)를 통해 참여단체 모집 중이다. /장은성 기자

전북문화누리 상품안내책자 배부

전북문화관광재단(대표이사 이경윤)은 문화누리 상품안내책자를 배부했다고 밝혔다.

이 책자는 전북지역의 특성을 반영한 것으로 △전화로 주문할 수 있는 다양한 상품정보 확인 △4가지 테마로 여행을 즐길 수 있는 문화누리 투어서비스 △전북지역의 대표 상설공연 할인 혜택 제공 △공방에서 직접 찾아가는 문화서비스 정보 등이 있다.

3일 재단에 따르면 도내 모든 주민자치센터와 문화누리카드의 수요가 있는 복지기관 330개소에 약 7,000부 배포가 완료 됐다. 특히 올해는 단순한 상품의 정보뿐만 아니라 전북지역의 문화, 관광, 공연 등 다양한 분야에 서 책자를 제작해 수혜자들의 문화누리카드 사용에 대해 쉽게 접근 할 수 있도록 구성했다.

이경윤 대표이사는 "전북지역의 문화누리카드 수혜자 모두가 카드이용에 대한 정보를 간편하게 볼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다"며 "올해 추가로 농·어촌지역의 카드 활성화를 위한 맞춤 책자를 제작하겠다"고 말했다. /장은성 기자

전북 서부권 문화재돌봄센터, 금산사 미륵전 긴급 복구

전북 서부권 문화재돌봄센터(센터장 남해경)는 집중호우로 인한 관리 대상 문화재 376개소에 대한 긴급 모니터링을 실시했다고 3일 밝혔다. 이에 따르면 국보인 김제 금산사 미륵전 지붕부 처마의 수막새 다수가 탈락하는 피해를 확인, 유관기관인 전라북도, 김제시, 금산사와의 신속한 협의를 통해 긴급복구를 했다.

복구에 참여한 홍의성 전북 서부권 문화재돌봄센터 경미수리팀장은 "우리의 소중한 문화재를 후대에 온전하게 물려준다는 사명감을 갖고 임했다"며 "앞으로도 우리 문화재를 관리하는데 소홀함이 없도록 세심하게 살피겠다"고 말했다.

남해경 센터장은 "최근 이상기후로 인해 우리 문화재의 안전이 위협을 받고 있다"며 "우리 센터가 관리하고 있는 문화재 피해에 대해 발빠르게 대응해 건물 누수 등 2차 피해로 이어지지 않도록 사전 예방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장은성 기자